



원 D의 중심을 M_1 이라 하고, M_1 을 수선의 발 (원 D를 포함하는 평면에 내린) 은 갖는 축 AB 위의 점을 M_2 라 하자.

$\overline{AP} = \sqrt{3}, \overline{AB} = 3, \therefore \overline{BP} = 2\sqrt{3}, \overline{BM_1} = \overline{M_1P} = \sqrt{3}.$

$\angle APB = \frac{\pi}{3} = 60^\circ, \therefore \overline{HP} = \frac{\sqrt{3}}{2}, \overline{AH} = \frac{3}{2},$

$\overline{BH} : \overline{BA} = \frac{3\sqrt{3}}{2} : 3 = \overline{BM_1} : \overline{BM_2} = \sqrt{3} : \overline{BM_2}, \therefore \overline{BM_2} = 2, \overline{M_2A} = 1, \therefore \overline{M_1M_2} = 1$

→ 원 D 위의 모든 점들과 점 M_2 와의 거리는 동일하다. (거리는 $\overline{BM_2} = 2$)

→ 원 D 위의 점 Q의 존재영역은 그림과 같이 원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P가 원 C위를 움직이는 점이므로 점 Q는 공간상의 점이 되고, 점 B를 고정시키고 평면 α 위의 점 P를 원 C위를 움직이도록 하면 중심이 M_2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의 일부부분으로 나타낸다.

→ 주의할 점: 원 C와 원 D가 동일한 반지름이므로 원 D를 회전시킨 도형의 평면 α 위를 접사영이 원 C 겹쳐 뜨는 내부에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류이다. 결국 점 M_2 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구와 원 D가 포함된 평면과의 교선으로 봐야한다. 즉, 평면 α 를 xy 평면, 축 AB를 y축이라 할 때 xy 평면 위의 접사영은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2인 원으로 나오므로 원 C보다 크다.

→ 따라서 XQ (선분) 길이의 최솟값은 $\overline{XM_2} + 2$ (M_2 는 구의 중심, 2는 구의 반지름)

이므로 $\sqrt{26} + 2$ 가 된다.

$\therefore m+n = 28 //$

